

기고

얼핏 들어만 봤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사기'란?

임기현 나주경찰서 수사지원팀 순경



우리는 날이 갈수록 변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중 '대면편취형'이라는 단어를 어렵지 않게 접해보았을 것이다. 스미싱, 파밍, 피싱 ... 등등 여러 유형의 피싱사기 범죄 중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란 무엇일까?

보이스피싱 범죄라 하면 누구들 흔히 피해자를 속여 계좌이체 통해 돈을 송금받는 형태를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갈수록 변화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악랄하게도 피싱전화에 속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편취하는 방법인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최근 성행하고 있다. 그 수법 중 하나는 금융기관 사칭을 통해 "00은행 직원입니다. 저급리에 대한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에 속아 직접 만나 돈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현재도 많은 피해자들이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피싱범은 인상착의를 모두 가린채 차량도 타지않고 도보를 통해 피해자를 대면하기에 CCTV를 통한 추적 수사 또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외에도 검찰사칭, 금감원사칭, 자녀사칭 등 그 수법들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고 직접 현장에서 현금을 건네주는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홍보를 통한 범죄 예방 교육만이 직접 범죄자를 만나 피담뉘러 번 돈을 스스로 직접 가져다주어 그 어떤 잘못도 없는, 하지않은, 자신에게 밀려오는 상실감·죄책감을 느끼는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일 것이다.

그 방법 중 첫번째는 대한민국의 그 어떤 기관도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로 만나 현금을 건네주거나 맡겨놓으라고 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

두번째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핸드폰을 통해 발생한다. 그렇기에 주기적인 악성코드 점검을 통해 핸드폰 해킹유무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찰청에서는 '시티즌 코난'이라는 불법 어플 탐지앱을 개발해 자칫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알려 피해 예방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다.

'수백에서, 수천, 혹은 수억'에 이르기까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자책하는 피해자들이 우리 또는 우리의 주변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조차도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간 정보공유를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별 사례·예방교육이 우리 모두에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법률구조상담	132
▲응급질병상담	1399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키야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최정현 편집국장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부모의 행동을 자녀가 배운다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효도하는 부모 밑에 효도하는 자녀가 태어나며 대를 이어 효행을 하는 가정문화가 형성된다.

서양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효 문화는 명절 때 고향을 찾아 부모와 조상을 찾는 데서 볼 수 있다.

인간은 교육에 의해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한다.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며 가정에서의 인적 교육환경은 자녀의 행동과 인성 변화에 영향을 준다. 가정에서의 인적 교육환경은 부모며 다음은 형제들이다. 부모의 행동은 자녀의 변화에 큰 영향을 준다.

부모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 하지만, 반면 자녀를 망치는 부모의 습관이 있다고 한다. 첫째, 자녀가 사방에 흩어놓은 물건들을 매번 치운다. -아이의 커서도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할 것이다. 둘째, 밥투정 옷 투정 등 불평을 할 때 모두 들어준다. -아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할 것이다. 셋째, 자녀 앞에서 자주 부부 싸움을 한다. -아이는 불안하고 난폭한 사람이 될 것이다. 넷째, 자녀 앞에서 불평을 늘어놓는다. -아이는 매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다.

다섯 번째, 잘못을 저질러도 대충 넘어간다. -아이는 나중에 더 큰 잘못을 할 것이다. 여섯 번째,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준다. -아이는 점점 요구하는 것이 커질 것이다. 일곱 번째, 늦게 귀가해도 무관심하다. -아이는 방탕한 길로 빠질 것이다. 여덟 번째, 항상 우울한 표정을 짓는다. -아이는 비관론자가 될 것이다.

부모의 과 보호는 역기능으로 자녀가 의타성이 생기며 자주적 문제해결력이 떨어진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요즘 부모님들의 자녀교육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본이 되는 행동과 훈계 없는 교육은 지식은 가르칠 수는 있어도 인성과 인품은 가르칠 수는 없다. 뛰어난 사람이기보다 따뜻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 그것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다.

교육은 원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부모보다 더 자연스럽게 훌륭한 교육자는 없다. 요즘은 가족이 핵가족이 되면서 조부모가 같이 살지 않으며 부모와 같이 살고 부모는 일터에 나가서 바쁜 생활을 하므로

자녀와 접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

핵가족 제도에서 역기능은 자녀들이 형제들과 어울리는 사회성 문제와 상대를 배려하는 우리의 전통문화인 효 교육이 가정에서 등한시되고 자녀들이 효행을 배울 기회가 줄어들었다. 대가족 제도에서는 부모가 조부모에게 하는 전통적인 효도와 예절 교육을 자녀들이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으며 대를 이어 효 자녀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핵가족의 현실에서는 명절 때 부모를 찾아 귀향하면서 자녀와 같이 가는 것도 효 교육의 일환이 될 수 있으며 평소에도 부모께 선물을 보낼 때는 자녀를 대동해 같이 보내면서 부모에게 보내고 주는 효행을 배우게 해야 한다.

서양 사람들이 한국인의 효성 심과 효행을 부러워하는데 해마다 명절 때만 되면 어려운 교통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고향과 조상을 찾는 효행의 실천이다. 올해도 계묘년(癸卯年) 설날이 지났는데 한파가 심한 추위를 이겨 내면서 고향을 찾고 조상을 찾아 성묘하는 인파가 줄을 이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서양의 문화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전통 효행과 떨어져 명절 연휴만 되면 외국 여행길에 오르는 족속들이 고향을 배우고 있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부모의 행동을 자녀가 배우고 그대로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설을 일제 강점기 때 못 쇠게 했지만, 조상숭배의 효심은 막지 못하고 맥을 이어 왔으며 광복 이후에도 이중과세라고 설을 못 쇠게 했으나 국민의 여론에 못 이겨 설을 우리의 전통 명절로 인정해서 추석과 같이 연휴로 부모 조상을 찾아 효행을 하게 하고 있다. 외국 여행가라는 명절이며 연휴인 가을 생각해야 하며 이러한 부모의 행동을 자녀들이 배우고 불효를 실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하는 교육은 적절한 때와 장소가 있다. 이것을 계기 교육이라 하는데 핵가족 사회에서 일과직접을 알고 조상을 알게 하는 계기 교육 때가 명절 때다. 부모가 자녀의 소중함을 안다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하며, 자녀 교육자로서의 부모의 행동이 자녀의 인성을 교육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올바른 행동으로 참교육해야 한다.

화목보일러 안전하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허관수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찬바람이 불고 추운 겨울철인 요즘 차가운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난방용품 사용이 증가하는 계절이다.

또한 화목보일러는 기름이나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지 않고 나무를 사용하기 때문에 연료비와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일반주택이나 농촌지역에서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역시 크게 늘고 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다. 대부분 온도조절 자체가 없어 많은 연료를 투입할 경우 과열에 의한 복사열이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는 화재 위험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나무가 타며 불씨가 주위 가연물에 옮겨 붙어 화재 가능성이 높아진다.

화목보일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몇가지 소개한다.

첫째, 보일러는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해 설치한다. 실내에 설치할 경우 콘크리트 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 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해야 한다.

둘째, 연통 안에 찌꺼기 등이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보일러 연통에 남아 있는 그을음을 제거하고 타기 쉬운 천장 등에 연통이 닿는다면 연통을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 열이 전달되는 걸 막아준다.



셋째, 보일러 주변 2m 반경 내에는 가연물을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화목보일러 주변까지 강한 복사열이 전달돼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에 인화성 물질이나 불에 타기 쉬운 장작 등은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보관한다.

넷째, 화목보일러 사용 시 투입구 부분을 꼭 닫는다. 투입구를 닫지 않을 경우 불티가 바람에 날려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 화목보일러 사용 후 투입구를 열 땀 보일러 내부의 열기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측면에서 서서히 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일러 인근에 초기 화재에 도움이 되는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간이소프링클러를 설치한다.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관심과 실천이다. "나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화목보일러는 한순간 부주의로 화재보일러가 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 항상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살펴보고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한다면 이번 겨울도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앤프레스